

다들 드디어 희망을

2014. 4월 www.womenfund.or.kr



- 기획 다같이 놀자, 동네안에서
- 나눔과 공감 한부모여성가장들을 위한 건치의 의료나눔
연금 1% 나눔을 실천하는 권태완기부자
- 함께 만드는 변화 사랑에도 공부가 필요하다, 20대 여성들의 <데이트공작단>

딸들에게 희망을

2014. 4호

홈페이지 www.womenfund.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kwomenfund
트위터 twitter.com/womenfund
해피로그 happylog.naver.com/womenfund.do

발행인 조형
편집인 박기남
기획편집 (재)한국여성재단 기획홍보팀
발행일 2014년 7월 30일
등록번호 마포마00061
발행처 (재)한국여성재단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5길 13
전화 02-336-6364
팩스 02-336-6459
디자인인쇄 the Shy Letter 070-8801-6772



지난 6월30일 여성재단 1층,
나눔과 돌봄, 살림의 사회를 여는 공간
<박영숙홀>이 문을 열었다.
(사진: 김신작가, 재능나눔)

2014 <딸들에게 희망을>은
20대 여성들이 모여 창업한
더사이레터(the Shy Letter)의
편집과 디자인 재능나눔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Contents

사립문

박영숙홀이 주는 의미 조흥식_한국여성재단 이사 03

기획

다같이 놀자, 동네안에서 04
CCTV만으로 안전한 동네를 만들 수 있을까 05
마을안으로 들어온 아이들, 마을N도서관 07
마을에서 노는 언니들의 이야기, 오! 마을 08

나눔과 공감

한부모여성가장들을 위한 건치의 의료나눔 10
연금 1% 나눔을 실천하는 권태완기부자 12

함께 만드는 변화

사랑에도 공부야 필요하다, 20대 여성들의 <데이트공작단> 14

소식

재정보고 16
후원현황 18
재단소식 21

만 명의 기부자가 만드는

안전하고 즐거운 세상 <만만클럽> 23

박영숙홀이 주는 의미

박영숙홀이 지난 6월 30일에, 1주기 추모전시와 함께 한국 여성재단 1층에 아담하게 문을 열었다. 추모홀 건립은 후속 세대가 고인의 생애를 기리면서 그 뜻을 이어가겠다는 다짐의 한 방법이다. 따라서 추모홀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고인의 생전의 삶의 무게 중심이 무엇이었는지를 짐작하게 된다. 학문 후속 세대들이 대개 스승이나 선후배의 학문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학교 안이나 학문의 냄새가 배어나는 곳에 건립하는 것도 같은 이치이다.

잘 아시다시피 별세하신 박영숙 선생님은 국회의원, 당 총재권한대행, 대통령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유엔 환경개발회의 한국위원회 공동대표, 여성환경연대 으뜸지기,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이사장,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무처장,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등 수많은 공적인 일을 맡아서 성실히 수행하신 분이다. 그런데 박영숙홀이 썩 크지는 않지만 소담하고 아름다운 공간인 여성재단 1층에 존재한다는 것은 삶의 대부분을 여성운동에 바치신 여성재단의 맏언니로서의 삶의 무게가 무엇보다 큼을 보여주고 있다.

박영숙 선생님은 “딸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이름으로 여성운동에 남다른 힘을 쏟으며 맏언니로서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오신 우리시대 여성운동 역사의 산증인이다. 어리석고 못난 남성들까지 껴안고 가야만 성평등을 이룰 수 있

다면서 그래도 딸들을 좋아하는 아빠들을 여성재단에 함께 봉사하도록 끌어들이는 박선생님의 설득력은 지금 생각해 봐도 배포 큰 포용력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요즘 입법, 행정, 사법 등 3부 요직에 있는 지도자들의 껄껄하고 좁쌀 같은 말과 처신을 보면 더욱 그렇다. 여기에 남녀는 따로 없다.

나는 선생님의 어떤 모습보다 박영숙홀 전면에 보이는 선생님 사진 모습을 좋아한다. 선생님의 단아한 미소 때문이다. 지금은 직접 볼 수 없어 안타깝지만, 생전에 그 미소를 가끔씩 접할 때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넉넉한 수용과 포용을 느낄 수 있었다. 그 미소 덕분에 끌려와서 지금까지 여성재단에 한 발을 담고고 있음은 거의 숙명이라 해도 좋다. 그 후 1년에 한두 번 손수 지어주신 음식들을 맥에서 대접받곤 했는데, 그 대접조차 풍성하고 넉넉했다. 넓은 앞치마 두르신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

이처럼 박영숙홀은 넉넉한 포용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특히 딸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 들어주면서 기(氣)를 살리는 공간이면 좋겠다. 그리고 재단의 할 일로서 “기부를 요청할 땐 당당하게 요구하고, 기부금을 전할 땐 공손하게 전하라” 시던 선생님의 말씀이 계속 잘 실행되면 좋겠다. 그리하여 여성재단이 여성운동의 지혜로운 못자리판으로 계속 쓰임 받기를 기원한다. W

한국여성재단 이사 조 흥 식

기획

다같이 놀자, 동네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어떤 곳일까? 아파트숲과 어두운 골목길, 곳곳의 CCTV가 생각난다면? 어느 누구도 나의 안전을 책임져 주지 않을 거란 생각이 어느새 입력되었나보다. 어떻게 하면 우리 동네가 안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동네가 재미 있는 재미난 놀이터가 될까? 혼자만의 그 불안함을 마을사람들이 함께 해결하는 동네를 소개한다. 마을을 여행하며 지도를 만드는 아이들, 시끌시끌한 도서관, 밥도 먹고 함께 노는 풍경들. 뭔가 재미난 이야기들이 숨어있을 것 같은 궁금함이 생기는 동네. 우리 동네 어디까지 가봤니?



CCTV만으로 안전한 동네를 만들 수 있을까?



지난 6월28일 여름날 주말오후, 대구 북구 합지공원에서 <마을은 하나다> 커뮤니티 꿈길마을(꿈따라 길따라마을) 문화제가 열렸다. 아파트숲 한가운데 자리한 공원안에서는 커뮤니티매핑, 종이부채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부스, 친환경 장터가 열리고 다부초등학교 아이들의 난타, 경북대동아리 <일렉스>의 공연, 함께사는세상의 연극 <바람의 기억> 등 세대별 문화공연도 펼쳐졌다. 이번 축제는 <대구북구여성회>와 <대구북구시민연대>, <경북대 동아리연합회> 등 지역단체와 학교가 아주 모처럼 뜻을 모았다. 대구 북구여성회의 장지은대표는 “이렇게 동네사람들이 모이고 또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일이 많아지면 동네는 한결 정겹고 관심이 생기고 ‘남의 일’로 느껴졌던 일이 ‘나의 일’처럼 함께 하는 곳이 될 것”이라고 행사취지를 설명했다.

작년 2013년부터 대구북구여성회는 마을도서관에 안전안심센터를 마련했다. 아이들은 학교나 어린이집이 끝나는 오후 2시부터 6시, 토요일도 오후 4시까지 부모님이 올 때까지 책도 읽고 오감놀이(음악, 전래놀이, 미술 요리 등)를 하며 놀았다. 무엇보다 동네가 안전안심하기 위한 주민강좌도 열고 아이들과 함께 놀 어른들의 재능나눔, 그리고 구체적인 ‘커뮤니티 매핑’을 준비했다.

이야기와 친근함이 더해진 마을지도, 커뮤니티 매핑

마을이 안전하려면 먼저 마을을 알아야했다. 우리 마을이 안전한 곳, 안전하지 않은 곳을 구별해내고 지도에 표시해서 고쳐나가면서 마을과 지역주민이 서로 알아간다는 의미의 <지구마을, 착한여행> 프로젝트를 초등학교 아이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아이들과 자원활동가들이 동네 곳곳을 여행하며 지도에 아이들이 안전을 위협받거나, 어른들이 다니기 위험한 곳, 장애인분들은 불편한 개선이 필요한 곳, 이용가능한 공개화장실 등을 표시했다. 장대표는 “우선 아파트와 주택가, 아파트에 사는 아이, 주택가에 사는 아이로 나눠져 있던 경계가 여행을 통해 자연스럽게 허물어졌다”고 했다. 아이들의 눈에 비친 동네풍경은 뭔가



기발하고 이야기가 있었다. 동네에 있다고만 들었던 천연기념물도 직접 찾아가보고 신기해한다. 떡볶이 한 두 개 더 주는 친근한 가게도 지도에 표시해 다른 이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어했다. 지도에는 우리동네 공동체 공간과 가장 오래된 추억과 향기가 담긴 장소도 표시되었다. 아이들은 함께 한 자원활동가와도 친근해져 길에서 만나면 이름대신 별명을 부르며 멀리서 달려온다. 아이들은 동네사람들이 친근하고 관심을 주고있다는 것을 체득하기 시작했다.

유리조각이 많거나, 아이들이 넘어지기 쉬운 곳, 고쳐야 할 곳이 생기면 대구시 공무원 관계자와 간담회를 통해 해결해나간다. 대구 북구여성회가 아이들과 함께 만든 지도는 온라인 상에 보여지는 안전/불안전의 표시뿐만 아니라 믿음을 주는 지표였다.

우리 아이 돌봐줘서 고마워요

맛벌이하는 부모들은 또래 엄마들끼리 밤마실도 한다. 밤에 이웃집에 놀러가는 건데, 엄마가 돌아오기전까지 아이를 맡아주는 것. 일종의 품앗이 공동육아인셈. 친밀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특히 자원활동하는 주민들은 즐거움과 동시에 책임감도 느낀다고 하니 많은 이들에게 안전안심센터와 매핑의 효과가 전파되고 있다.

한국여성재단이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한화생명의 후원으로 진행하는 <아이가 안전하고 부모는 안심하는 우리동네>는 내가 사는 동네가 친근하고 즐거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서로 돌보는 곳이 되어야한다는 마음으로 시작되었다. 이곳뿐만 아니라 경기도 <구리여성회>와 주민들은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마련을 위해 서명도 하고 공청회, 거리캠페인 등을 개최해 시청과 경찰서가 횡단보도 설치를 위해 나설 수 있도록 이끌었다. 부산 연제구의 <부산여성회>와 엄마들은 방과 후 아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마을사랑방을 만들었다. 학교와 학원이외에는 갈 곳이 없었던 아이들이 함께 놀고 밥도 먹고 공부도 도와주는 착한 언니와 형들을 만날 수 있다. 대전 <풀뿌리사람들>은 집에서 어린이도서관까지 안전하게 아이들이 걸어다닐 수 있는 마을을 만들고 있다.

안전을 위해 CCTV를 설치하면 사람들은 안전함을 느낄까? 오히려 감시의 눈을 피해 문을 걸어잠글지도 모른다. 우리동네를 안내할 지도가 있고 가게마다 지켜봐주는 어른들이 있다면 아이들은 해가 길어진 여름날 저녁에도 시간가는 줄 모르고 동네에서 마당삼아 뛰어놀게 될 것이다. 열려있되, 관심이 함께 하는 것. 바로 안전하고 안심하는 동네의 진정한 모습이다. **W** 대구북구여성회 커뮤니티 매핑 <http://www.mapplerk.com/bgwoman>

마을안으로 들어온 아이들, 마을N도서관

6년 전 아이들과 함께 찾아간 꿈나무도서관. 문선미씨는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사람들을 만났다. 아이들과 함께 책 읽으러 온 엄마들이었다. 도서관에서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놀거리를 만들다보니 시간은 것도 잊었다. 그렇게 아이들이 커가고, 자연스럽게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생겨났다. 그러다가 탈학교 아이들, 언제든 학교를 그만둘 수 있는 위기청소년들이 눈에 들어왔다. 낮에는 주자차이나 마을공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새벽녘에는 넓은 도로에서 꿈음과 함께 오토바이를 탔다. 우선은 걱정이 됐다. 아이들을 만나고 싶었고 돌보고 싶었다.

〈작공〉은 마을N도서관의 청소년별 카페, 징검다리 거점공간이다.

그러면 마을에서 청소년들을 만나보자해서 청소년 공간 〈작공〉*이 생겼다.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심지어 혼자 생계를 꾸려가는 아이들도 있었다. 집의 아이들 먹거리 챙기듯 〈작공〉의 아이들에게도 신경을 썼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맛있는 밥을 먹이기 위해 〈마을N밥상〉도 만들었다. 그리고 얘기해준다. “오토바이 탈 땐 꼭 헬멧을 쓰렴, 걱정되니까.” “쓸게요, 걱정마세요.” 전에는 폭주를 해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는데 어느새 아이들이 동네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왔다. 아이들은 〈작공〉에서 밴드도 하고 노래도 하고 영상도 만들고 텃밭도 일구며 지낸다. 마을N도서관(마을기업)은 이렇게 책도 읽고 여러 가지 학습이 이루어지는 〈마을N카페〉와 아이들 놀이터 〈작공〉, 먹거리 〈마을N밥상〉을 만들면서 지역에 있는 20여개의 단체들과 함께 마을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다.

도서관은 이야기가 펼쳐지는 곳

한국여성재단은 〈2014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으로 문선미 활동가를 지원하고 있다.

6여 년 동안 마을활동의 비결이 뭘까? 문선미씨*는 도서관이 중심이었다고 말한다. 처음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엄마들과 나눴던 일들, 지금 은평뉴타운에 있는 〈꿈지락도서관〉에 파견나와 있으면서 그가 새삼 느끼는 바다. 〈마을N도서관〉은 꿈나무도서관에서 독서모임을 통해서 나눴던 이야기들을 행동에 옮긴 결과물이었다. 프로그램도 만들고 공동출자해서 카페도 만들고 〈작공〉을 만들어 청소년들이 모이고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다보니 여기까지 왔다. 여기 〈꿈지락도서관〉의 운영도 역시 지역주민이 정말 하고 싶은 일들을 우선적으로 만들어 실천하려고 한다. 엄마들의 육아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미술치료를 하다가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더불어 하게 된 것처럼 말이다. 최근엔 역사에 관심있는 엄마들이 모임을 만들어 조만간 아이들과 함께 여행갈 일에 들떠 있다. 책 읽는 엄마들의 모임을 만들고 싶어서 〈책먹는맘〉 모임도 만들었다는 문선미씨. 도서관을 ‘책 읽는 곳에서 이야기를 펼쳐내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일, 그가 꿈꾸는 도서관이다. W



꿈지락도서관 활동가들과 함께 (오른쪽)

마을에서 노는 언니들의 이야기, 오! 마을



한국여성재단은 <2014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으로 민양운 대표를 지원하고 있다.

대전여민회가 중촌동 마을공원에서 장터를 열고 있을 때, 아이들이 참여하는 장터도 함께 해볼까? 이 한마디로 모든 게 시작됐다. 민양운 <풀뿌리여성마을숲> 대표*는 컴퓨터 앞에만 앉아있는 아이들에게 생각의 힘을 길러주고 싶었고 엄마들과 함께 책을 읽기 시작했다. 어린이장터를 통해 경제교육을 시키고 <최고의 밥상을 찾아라> 캠프를 열면서 엄마들은 신이 났다. 그리고 대전여민회 한쪽 공간에서 <책사랑>모임을 계속 했다. 책을 좋아했지만 도서관에 대한 생각은 그때까지도 부담스럽기만 했다.

시작은 어린이도서관 짜장

그러다 부친의 작은도서관을 탐방할 기회가 생겼고 눈앞에 펼쳐진 도서관의 모습을 보고 용기를 냈다. 즐거운 모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엄마들에게 노트북에 담은 부친도서관 사진을 보여주었다. 중촌동에 도서관을 만들어보자고, 함께 해보자고 준비위원회를 결성했다. 뜻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장소였다. 마침 동사무소가 마련해준 공간에서 '참말, 진실, 거짓이 없는' 뜻을 가진 순우리말에,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짜장면을 연상시키는 예쁜 '짜장'이라는 이름을 달고 도서관 문을 열었다. 도서관이 생기자, 아이를 데리고 동네 엄마들이 속속 모였다. 천여 권이 넘는 책들속에서 아이들은 책을 읽으며 놀았고, 또 엄마들만의 인생사와 고민들이 한가득한 도서관이 되었다. 엄마들은 이곳에서 수다와 함께 육아 문제부터 오늘은 뭘해먹지 고민하며 반찬도 나눴다. 그러다보니 도서관은 너무 좋았다. 엄마들만의 공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마을카페 <자작나무숲>이 탄생했다. 이제는 마을주민들에게 너무나 당연하고 필요한 곳이 되었다.

마을에서 노는 언니의 마을살이

건물주가 무상으로 공간을 열어주고 한국여성재단과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이 지원한 시설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과 한국여성재단이 여성생활, 이용시설 및 비영리 여성단체의 시설개보수사업을 지원한다.

개보수사업* 1호의 영광과 함께 마을카페 〈자작나무숲〉 문을 열었다. 도서관은 도서관답게 책과 아이들 중심으로, 이곳도 카페답게 공정무역 커피와 품앗이강좌, 초여름밤 야외극장을 열면서 마을의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았고 자원활동가들이 품앗이로 카페를 운영했다. 카페는 하고 싶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아이들이 마을에서 커가는 동안, 엄마들의 고민은 또 시작됐다. 커가는 아이들의 교육비 등 엄마들에게 경제활동이 요구됐다. 하지만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동네 밖에 있는 일자리는 넉넉하지 않았고 좋은 일자리가 부족했다. 그래서 그 고민은 또 마을에서 돈을 벌수 없을까로 이어졌다. “엄마들은 무엇보다 먹거리에 들어가는 첨가물의 문제나, 아이들의 아토피 등이 걱정거리였어요.” 그래서 민대표는 친환경 먹거리운동을 고민했다. 마을기업 공모사업에 기획서를 내고 유기농, 첨가물 없는 우리밀 발효빵과 수제쿠키를 만드는 먹거리기업, 평화가 익는 〈보리와밀〉을 설립했다. 여기까지 들고 나니, 〈어린이도서관짜장〉, 〈자작나무숲〉, 그리고 〈보리와 밀〉 마을이 만들어지는 역사가 한눈에 들어온다.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이 나누기

많은 이들이 마을을 찾아 여행을 왔다. 중촌동에는 100년 전부터 버드나무 한그루가 마을을 지키고 있다. 일제때부터 독립운동가와 남북분단 등 전쟁으로 인한 좌익사범들이 수감되었던 형무소앞 왕버들, 지금 그 터만 남은 곳에 자리한 이 나무를 사람들은 평화의 나무라 부른다. 이렇듯 마을의 이야기를 주변 동네들과 나누고 싶어 〈오! 마을〉을 어렵사리 창간했고 중촌동, 목동, 용두동, 은행성화, 태평동 등에 배포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보리와 밀〉옆에 동네부역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공동의 밥상처럼 요리도 해먹고 반찬도 나누고, 공간도 나누고 싶어서다. 이번엔 어떤 이름이 탄생할까? 마음이 머무는 밥상? 민대표는 새로운 공간에 설레는 중이다.

하고 싶어서 시작한 마을운동, 마을을 위해서 해야하는 일도 있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를 위해 마을 전체 주민들과 단체들이 함께 준비하고 있다.

올해 민양운대표는 그 동안의 마을활동을 경험을 담은 〈마을에서 노는 언니의 마을살이 안내서〉를 핸드북 형태로 만들 계획이다. 마을만들기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하며 그래 해보자! 하는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오늘 두어시간 짧은 인터뷰에 다 답을 수 없었던 마을이야기는 조만간 출판될 마을살이 안내서에서 마저 다 생생하게 들려줄 것이다.

조만간 〈보리와 밀〉 옆 작은 동네부역에서 만든 음식을 다함께 둘러앉아 먹는 만찬을 상상해본다. 중촌동 마을이야기, 이제 2막의 장이 오른다. **W**



마을카페 활동가들과 함께 (가운데)

한부모 여성가장들을 위한 건치의 의료나눔



여성건강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여성들이 씩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지난 7월1일, 여성재단 1층 박영숙홀에서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가 여성재단과 협약식을 갖고 치과치료가 필요한 여성가장과 여성활동가들의 진료비 50% 재능기부를 하기로 했다.

매년 여성건강지원사업중 치과치료의 경우 모집과 동시에 예산이 소요될 정도로 수요가 많고 2009~2012년 여성재단의 의료지원을 받은 여성가장과 자녀들 중 치과가 5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희망을 효과성연구: 연구책임자: 정진주) 건치의 이번 재능기부로 하반기에는 좀 더 많은 여성들이 치과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달현 건치공동대표는 “좋은 취지의 사업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직업적, 사회적으로 큰 행운이라고 생각한다”며 “취약계층 여성들의 치료에 있어 접근성, 형평성이 개선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감사를 표했다.

올해로 25주년을 맞은 건치는 의료민영화, 영리병원도입을 반대하는 등 사회적 의료환경을 위한 활동도 하지만 쌍용차해고노동자 및 가족들을 위한 치과진료 등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재능기부도 하고 있다. 처음 사무실을 구로동에 마련한 것도 공단지역 노동자들의 진료를 위해서였고 초창기에는 울릉도 등 의료체계가 미치지 어려운 곳에 의료봉사도 했다. 이러한 활동들 가운데 여성들을 지원하는 분야에서 여성재단의 멋진 파트너로서 함께 하게 된 것이다.

사회적 연계망을 통한 의료나눔 기대

대부분 치과에 대한 첫 경험이 좋지만은 않다. 아파서 간 병원에서 들렀던 정체를 기억소

리들로 아픔이 더해진 기억들. 병원이 편안하고 친화적일 수 없을까. 정대표는 “병원자체의 환경은 어쩔 순 없지만 동네에서 늘 만나는 의료진이라면 병원도 편안해질 것이다. 무엇보다 일상적인 관계가 잘 형성된다면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고 말한다. 동네와 동네주민들 곁에 늘 함께 하는 의료가 정착이 된다면 병원에 대한 첫 경험은 달라지지 않을까. 건치가 꿈꾸는 건 장기적으로 지역에 있는 의료자원이 네트워킹되어 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상적으로 치료나눔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건치가 주로 지역이나 단체를 통해서 치료나눔을 하고자하는 이유도 그래서 다르지 않다. 여성재단과의 이번 파트너십으로 치료대상자를 추천하는 지역의 여성단체들이 건치소속 의료진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다면 향후에도 여성치과진료가 지속될 수 있는 가치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치아건강에 좋은 약이 있나요? 무엇보다 일상의 건강 비결이 궁금했다. “즐겁게 사는 거죠.” 사람을 만나건 무엇을 하던 즐겁게 하란다.

“치아질병은 대부분 만성질환이지요. 그래서 질병에 대항하는 저항력을 키우는 게 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럴려면 즐거운 마음으로 사는 게 치아건강에는 가장 효과적이겠지요.”

뭔가 의사선생님만 알고 있을 법한 비법을 알려주실 줄 알았는데... 마음의 병(스트레스)을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건강의 지름길이라는 만고의 진리를 다시한번 확인하고야 말았다.

건치와 함께 하는 치과나눔은 7월부터 본격화된다. 7월중 건치소속의 참여병원을 통해 치료나눔을 할 병원을 모집하고 8월중에 여성재단이 하반기에 지원할 대상자를 선정하여 약 22명의 여성이 9월부터 지원받게 된다. 이번 지원을 통해 열악한 환경으로 치료시기를 놓쳐 고통을 겪고 있는 보다 많은 여성가장들이 치료를 통해 건강한 웃음을 되찾길, 무엇보다 건치의 사회공헌활동이 많은 의료시스템 개선에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 **W**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은?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여성가장 및 그 자녀(결혼이주여성 포함), 공익단체 여성활동가의 건강한 삶 회복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한국여성재단의 연중사업이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여성가장 및 여성활동가 총 186명이 본 사업을 통해 의료비를 지원 받았으며 그 중 치과치료지원은 114명이다.

연금 1% 나눔을 실천하는 권태완기부자



권태완씨는 영어교사로 서울에서 30년을 살았다. 몸과 마음이 지친 탓도 있지만 이방인처럼 서울이 낯설었다. 남편을 따라 내려간 춘천에서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며 몸과 마음을 다시 추스렸다. 61세가 되던 해, 직접 쓰고 그린 시화집 <북한강변길>을 펴냈다. 그게 벌써 10년 전이다. 여성재단에 연금 1%를 나누고 있는 권태완씨를 만난 건 여름이 시작된 7월의 어느 날이었다.

쓰고 싶은 시를,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쓰는 동안 몸이 회복되고 마음이 편해지니 무엇보다 얼굴빛이 썩양고 생기가 돌았다. 아침 일찍 서울에 올라오는 동안 여름 햇빛이 마냥 따가워서 피곤했을텐데도 그의 얼굴은 마냥 밝았다. 전혀 일흔의 나이처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젊은이에게서 느껴지는 활기찬 공기가 맴돈다.

권태완씨가 10년 전 환갑의 나이에 펴낸 <북한강변길>은 그래서 의미깊다. 일하는 며느리를 대신해 손자손녀를 돌보려 춘천과 잠실을 오가며 스쳤던 양수리의 풍광들, 그가 나고 자란 고향 양수리의 추억이 덧붙여져서 썼던 시들을 모았다. 그래서 제목이 <북한강변길>이 되었고 한 시대를 산 평범한 한 여자의 기록으로 공감되어지길 바랐다. 특히 어머니에 대한 시와 그림들은 강렬해서 애잔함이 느껴진다. 아이들 업고 벼랑을 오르는 여인, 천사의 날개를 단 머리 희끗한 어머니, 실제 권태완씨는 그런 꿈을 자주 꾸었다. 전시회를 열었을 때 관람객 한분이 다가와 “이 그림들을 보노라니 여자의 일생을 보는 듯하다”며 아픔이 공감이 느껴졌다고 했다. 그의 바람처럼 많은 여성들이 공감하는 전시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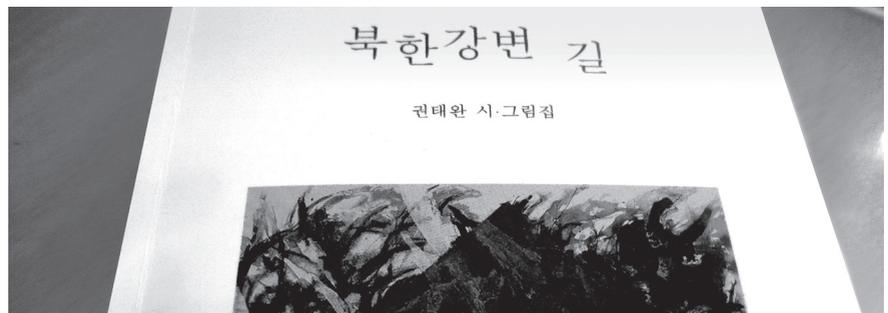
바쁜 일주일, 즐거운 나눔과 봉사

그림과 시, 그리고 그의 일주일은 나눔과 공부, 봉사활동으로 꽉 차 있다. 월요일엔 복지관에서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등 병을 앓거나 집이 없는 이들이 대부분인 원생들의 봉투제작

하는 일을 돕는다. 회사에서 주문을 받아 봉투를 만들어 납품하는 일인데, 권태완씨도 이들과 함께 작업을 하며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누는 말동무 역할을 톡톡히 한다. 화요일엔 춘천에서 함께 영어공부를 하는 친구들과 함께 서울에서 외국인을 위한 문화해설사 교육에 참여한다. 아마 교육을 마치면 고궁이나 역사유적지에서 외국인을 위한 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겠다. 수요일, 성당에 나가 소외계층을 돕는 일들을 함께 한다. 그리고 대망의 목요일은 활력 넘치는 날이다. 바로 노래교실이 있는 날! 그의 환한 미소의 비결이 여기가 아닌가 싶다. 노래를 한두 시간 목청껏 음미하며 부르고 나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 없다. 금요일은 문화해설사 과정을 함께 듣는 이들의 영어공부모임이 있다.

그의 일주일, 많은 이들이 꿈꾸는 노년의 버킷리스트가 아닐까한다. <북한강변길> 시집을 받은 지인들이 70을 맞은 그에게 궁금해 하는 게 있다. 바로 그의 두 번째 시집의 탄생소식이다. 사실 그는 두 번째 시집을 준비중이다. 본격적인 노년의 삶에 들어서면서 느꼈던 일들이 주된 얘기가 될 것이라. 내년쯤에 만나볼 그의 두 번째 시집, 특히 그의 강렬했던 그림이 어떻게 변화했을까 궁금하기도 하다.

은퇴를 앞두고거나 노년의 삶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에게 한마디 해달라고 하자,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 말을 이어갔다. “젊었을 때는 욕망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정말 하고 싶은 욕구를 위해 살았으면 좋겠어요. 욕망이 사회적으로 주어진 어떤 계층, 지위를 위해 돈을 벌거나 자식을 교육시키거나 출세하기 위한 거라면 욕구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하고 싶은 것을 찾으며 사는 것”이라고 했다. 여성의 역사를 시로 풀어냈던 그는 “자신만의 안목을 기르며 현재에 충실하고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는 시간도 꼭 가지길” 조언했다. 그렇게 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넉넉지 않은 연금의 1%를 기꺼이 나누는 그는 고궁으로 공부하러 발걸음도 가볍게 뚝뚝 걸어간다. W



사랑에도 공부가 필요하다, 20대 여성들의 <데이트공작단>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를 만난다는 건 설레고 즐거운 일이다. TV속 <마녀사냥>이나 <우리 결혼했어요>를 보며 연애의 코스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기도 한다. 그런데 과연 모두가 즐거운 걸까? 의외로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한국여성의전화(공동대표: 정춘숙, 손명희, 염미봉)가 2000년에 들어서면서 주목한 것이 데이트폭력이었다. 2007~2010년까지 총 4년간 성폭력상담(1,904명)의 30%가 데이트폭력(586명)에 관한 상담이었다. 친밀한 관계에서도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일이었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은 진짜 폭력이 아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조재연활동가는 “사람들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은 ‘진짜’ 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건강하지 못한 데이트 관계에서 폭력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한다. <건강하고 평등한 연애를 위한 데이트공작소>*는 데이트폭력은 폭력자체뿐 아니라 사랑과 연애안에 숨어있는 폭력, 권력 등을 올바로 볼 수 있는 눈을 키우고 연애의 문화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출발했다. 물론 연애가 전 생애에 걸쳐 일어나며 누구에게나 일어나지만 특히 연애지상주의시대의 20대에게는 필수요소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도 사실이다.

<건강하고 평등한 연애를 위한 데이트 공작소>는 한국여성재단이 2014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5월과 6월, 총 4회에 걸쳐 20대를 위한 실용연애특강 <사랑에도 공부가 필요하다>가 진행됐다. 사랑에 대한 것, 외모에 대한 것, 성적 자기결정권 등 강의와 토론으로 매 강좌마다 열기가 높았다. 개인블로그를 뒤져 헤어진 애인의 소식을 찾아보고 누군가 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나 자신을 평가하고, 남성에 의한 외모평가가 나의 미의 기준이 되었던, 그래서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거기에 맞추라)가 된 다양한 연애사가 쏟아졌다. ‘데이트’라는 개인적인 것이 ‘관계’라는 큰 틀에서 다시 보였다.

전 생애에 걸쳐 즐거운 연애를 하자

〈데이트공작단〉은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한 데이트강좌 기획, 데이트 UP데이트 캠페인 활동 등을 한다.

마침 1층에서 열리는 성폭력전문상담교육을 막 마치고 난 〈데이트공작단〉* 단원 옴프(트렌스포머4의 주인공 옵티머스 프라임)와 다겸씨를 만났다. 마침 상담교육이 있어서 찾아왔고 데이트강좌와 〈데이트공작단〉도 활동하며 현재 변화의 기점에 서있는, 변화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이들이다. 애인을 둔 옴프와 애인과 헤어지지 얼마 안돼 상심중인 다겸씨 두 분다 20대다.

옴프는 이번 연애특강때 남친을 데리고 왔었다. 남친이 지속적으로 거부하다 마침내 강좌에 온 날, 주제가 마침 〈성적 자기결정권〉이었다. 강의 후, 남친은 ‘난 달라, 너무 일방적이지 않아?’ 하며 한 두어 시간 언쟁을 할 정도로 날카로웠다. 한편, 다겸씨는 대학때 친구가 들고 다니는 여성학책을 우연히 보고 여성학강의를 들으며 새로운 시야를 갖게 됐다. 이번 〈실용 연애특강〉을 듣고 낭만적이고 즐거웠던 각종 연애이벤트, 남들이 하나까 아무생각없이 했던 습관적인 행동들을 이제는 한번 더 생각하게 됐다. 게다가 연애는 나 혼자하는 게 아니라서 상대의 생각을 더 알아야하고 소통해야하는 단계들이 많아져 머리가 더 복잡해졌다.

옴프는 지난날 언쟁을 했던 남친과 다행히 헤어지지 않고 즐거운 연애중이다. 다겸씨와 전철역을 향해 걸으며 남은 이야기를 이어갔다. 다겸씨는 이별의 아픔을 이 강좌를 통해 치유받았다고 한다. 이 강좌가 아니었다면 여전히 막연한 연애만을 꿈꾸었을 거라며, 힐링이 되었다. 카톡과 메신저로 얘기하듯하는 ‘접속의 시대’에 서로의 외로움과 고독을 이겨낼 끈끈한 ‘결속’이 필요하다는 다겸씨는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하고 있다. 6월, 강좌가 끝난 후, 꾸러진 〈데이트공작단〉은 즐겁고 재밌는 데이트문화변혁운동(?)을 위해 활동을 준비중이다. 이들은 캠퍼스를 직접 찾아가 평등한 데이트를 위한 강좌를 열고, 실제 벌어지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대응지침과 폭력 근절을 위한 집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 활동을 통해 여성주의에 관심이 있는 20대들의 즐거운 활동터도 생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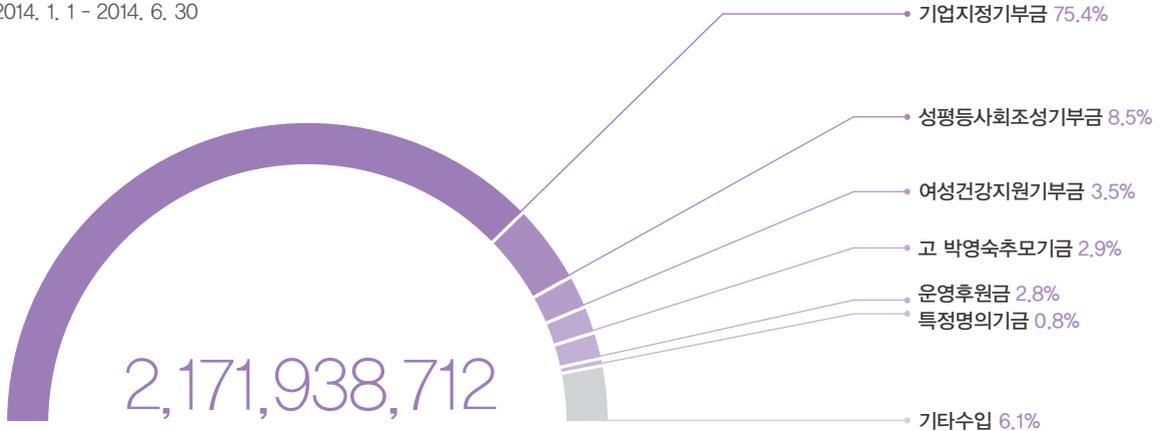
건강하고 평등한 연애는 무엇일까? 나에게 맞는 연인을 찾기 전 연애를 위한 공부도 반드시 필요할 듯하다. 여러분이 어느날 길을 가다 데이트캠페인을 벌이는 〈데이트공작단〉과 마주친다면 함께 즐겨주시길, 그리고 평등하고 즐거운 연애하시길! **W**

한국여성전화 안녕데이트공작소 사이트(www.sogoodbye.org)에서는 즐거운 데이트를 위해 알아야 할 것, 폭력지수테스트, 데이트폭력예방지침과 대처방안들을 소개하고 있다.

수입

기간

2014. 1. 1 - 2014. 6.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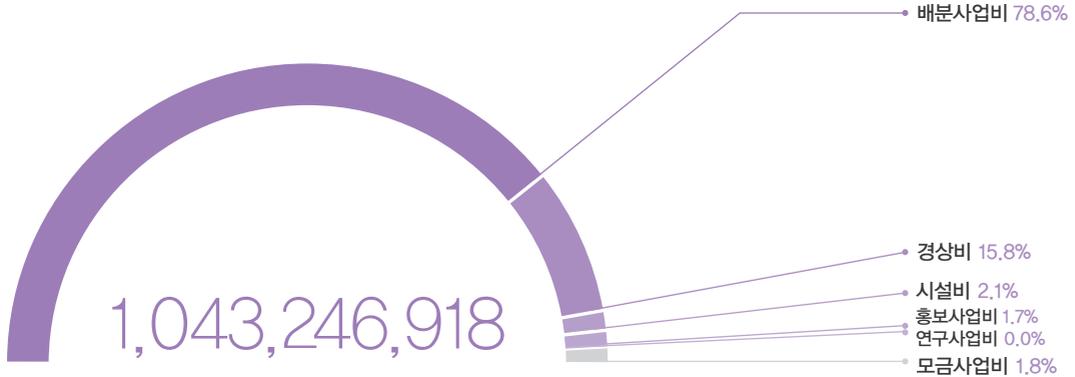


항 목	내 용	금 액 (원)
기업지정기부금	기업, 기관, 단체 등 국내외 지정기탁 사업지원 및 물품기부 등	1,636,778,186
성평등사회조성기부금	100인기부릴레이 기부 여성가장지원 지정기부 만만클럽(안전, 안심사회 만들기) 일터(가게)나눔 동전나눔 해피빈 콩기부 싸이월드 기부 카드포인트 기부 등	185,055,141
여성건강지원기부금	건강지원 지정기부금	76,248,000
특정명의기금	고사리손기금, 봄빛장학기금	17,012,000
고 박영숙추모기금	1주기 박영숙 추모사업 기금	62,390,000
운영후원금	개인, 기업의 한국여성재단 협찬 등	61,490,000
기타수입	이자수입, 임대료수입, 캐쉬SOS상환기금 등	132,965,385
총 수 입		2,171,938,712

지출

기간

2014. 1. 1 - 2014. 6. 30



항 목	내 용	금 액 (원)
모금사업비	모금행사, 기부자관리 등 경비	18,858,490
배분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평등사회조성사업 ·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소외여성 empowerment 사업 · 여성가장 및 자녀, '엄마에게 희망을' 여성활동가건강지원사업 · 다문화아동 외가집 방문 지원사업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 · 미혼모 자립지원사업 (CARL MARKS FOUNDATION) · 불빛장학금(탈성매매여성장학사업) · 여성건강지킴이 Project(내츄럴엔도텍) · 양육미혼모 모자가정 건강지원사업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교보생명) 여성공익단체 및 활동가 역량강화 · 여성NGO장학사업 (유한킴벌리) · 여성공익활동가 쉼프로젝트-짧은여행·긴호흡 (교보생명) ·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 · 기업지정사업 등 사회적돌봄사업 · 안전안심우리동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한화생명) 	819,808,764
홍보사업비	소식지, 보고서 발행 및 홈페이지, 홍보영상물 제작 등	17,610,171
연구사업비	여성회의 기획 및 진행	346,500
경상비	인건비, 수수료, 사무행정비 등	164,532,909
시설비	건물유지관리비 등	22,090,084
총 지 출		1,043,246,918

2014년 5-6월 기부자명단

ㄱ (주)금강대교 가수풍선 가우더능 강경림 강경아 강경필 강경희 강광원 강광희 강기수 강남식 강다연 강대기 강덕순 강덕주 강덕희 강도경 강도수 강도연 강명석 강명연 강명진 강문영 강미라 강미연 강미주 강민구 강민아 강범희 강보승 강보은 강봉순 강석기 강성의 강성태 강소연 강수진 강순애 강순영 강순원 강순자 강승희 강신해 강연조 강원화 강은경 강은나 강은정 강인수 강재훈 강종남 강종남 강종환 강주란 강주희 강지연 강지원 강진애 강철심 강철원 강태구 강태리 강현선 강현옥 강혜선 강혜수 강혜숙 강혜승 강혜정 강호간 강효선 강희숙 강희정 경창수 경춘옥 고정표 고대연 고명화 고영희 고미나 고미소 고복신 고선일 고연정 고영아 고영주 고유지 고윤섭 고은영 고은정 고주형 고지연 고창우 고현철 고혜경 고화선 고희경 고희숙 공구표 공나희 공영숙 공옥분 공인자 광광미 광민혁 광보름 광소영 광익길 광영선 광용규 광용녀 광윤주 광은숙 광지혜 광철환 광현미 광희환 구명숙 구미영 구민수 구본경 구상권 구영남 구영만 구영선 구옥순 구윤태욱 구은경 구인선 구자민 구자희 구재용 구정환 구정혜 구춘자 구충본 구태희 구현주 구희 국미애 국영자 권경옥 권광자 권금주 권기석 권난실 권미영 권민영 권민정 권복선 권상진 권순선 권순옥 권순희 권승희 권애연 권양희 권영국 권영남 권영민 권영선 권영애 권영옥 권오승 권오일 권은숙 권은지 권은혜 권인숙 권인호 권정윤 권주미 권진희 권태영 권태민 권태자 권태정 권태희 권현지 권혜경 권혜영 권혜영 권희숙 글로벌커뮤니티협회 금미선 금한연 기윤경 길란수 김기빈 김기연 김갑남 김갑순 김강식 김강희 김건수 김건우 김경구 김경덕 김경란 김경림 김경미 김경민 김경석 김경섭 김경수 김경숙 김경순 김경식 김경성 김경아 김경애 김경옥 김경원 김경은 김경민 김경미 김경자 김경주 김경학 김경혜 김경환 김경희 김계숙 김계화 김광태 김광미 김광수 김광옥 김광웅 김광이 김광자 김광철 김광희 김국성 김구식 김구아 김규연 김규태 김근아 김근애 김근래 김금연 김기동 김기상 김기선 김기숙 김길아 김나리 김나영 김남옥 김남주 김남호 김다솔 김다영 김다을 김대규 김대순 김대영 김대용 김대웅 김대은 김덕선 김덕식 김덕일 김도수 김도현 김도훈 김도희 김동식 김동진 김동천 김동호 김동희 김두용 김둘순 김득현 김만순 김만환 김매화 김명동 김명선 김명숙 김명순 김명옥 김명의 김명일 김명익 김명준 김명진 김명하 김명혜 김명화 김명희 김무영 김무진 김문수 김문정 김문화 김미경 김미란 김미영 김미림 김미선 김미숙 김미순 김미애 김미연 김미영 김미옥 김미자 김미정 김미주 김미향 김미화 김미희

김민경 김민성 김민수 김민영 김민예속 김민재 김민정 김민제 김민주 김민지 김민진 김민희 김범서 김범준 김범규 김범수 김범준 김보라 김보름 김보순 김보연 김보영 김복자 김봉겸 김봉일 김봉기 김상중 김상돈 김상민 김상본 김상순 김상완 김상옥 김상진 김상환 김상훈 김상희 김생기 김서현 김석원 김석준 김선갑 김선경 김선률 김선미 김선배 김선복 김선순 김선영 김선옥 김선화 김선희 김성권 김성규 김성근 김성분 김성숙 김성연 김성원 김성철 김성은 김성임 김성진 김성태 김성하 김성호 김성훈 김성희 김세화 김세희 김소연 김소원 김소현 김승이 김수경 김수리 김수미 김수민 김수빈 김수연 김수열 김수영 김수은 김수정 김수지 김수진 김수현 김수형 김수환 김수희 김숙경 김숙기 김숙성 김숙연 김숙임 김숙주 김숙희 김순근 김순기 김순덕 김순례 김순미 김순복 김순애 김순연 김순열 김순영 김순자 김순호 김승관 김승철 김시은 김시진 김시현 김신현 김신자 김신정 김실환 김아라 김아현 김애숙 김애정 김양근 김양자 김양희 김연재 김연례 김연미 김연순 김연화 김연희 김영국 김영규 김영균 김영기 김영길 김영남 김영덕 김영락 김영래 김영미 김영범 김영복 김영선 김영숙 김영신 김영신 김영아 김영옥 김영자 김영주 김영준 김영채 김영철 김영화 김영희 김영희 김예진 김오목 김옥숙 김옥은 김옥자 김옥천 김용 김용관 김윤남 김윤익 김우솔 김우향 김옥 김운주 김원동 김원숙 김원영 김유경 김유미 김유진 김윤경 김윤선 김윤수 김윤아 김윤정 김윤주 김윤지 김윤철 김윤희 김은경 김은미 김은수 김은숙 김은순 김은실 김은아 김은영 김은정 김은중 김은주 김은진 김은혜 김은희 김의성 김의향 김이경 김이곤 김이현 김익자 김인경 김인섭 김인수 김인숙 김인순 김인자 김인지 김인준 김인현 김일환 김지현 김진디 김창림 김재경 김재광 김재구 김재민 김재삼 김재선 김재연 김재현 김재운 김재현 김재춘 김재현 김재현 김정옥 김정규 김정기 김정애 김정환 김정미 김정민 김정선 김정수 김정숙 김정순 김정아 김정애 김정원 김정일 김정자 김정현 김정혜 김정화 김정훈 김정희 김중권 김중남 김중덕 김중성 김중순 김중주 김중철 김중화 김중희 김주만 김주미 김주영 김주원 김주찬 김주현 김주현 김주호 김주희 김준순 김준아 김준태 김준희 김준희 김지란 김지서 김지수 김지양 김지영 김지현 김지은 김지인 김지일 김지행 김지현 김지혜 김지환 김지훈 김진구 김진근 김진만 김진명 김진선 김진성 김진수 김진아 김진영 김진오 김진욱 김진용 김진원 김진일 김진주 김진태 김진희 김차순 김찬미 김창규 김창근 김창영 김창욱 김창재 김철순 김철우 김철홍 김청희 김초환

김춘지 김춘희 김태석 김태수 김태연 김태옥 김태유 김태진 김태환 김태훈 김택배 김필선 김하영 김학명 김한성 김해조 김형욱 김형민 김항미 김항이 김한관 김현/김민정 김현경 김현미 김현빈 김현수 김현숙 김현영 김현옥 김현자 김현정 김현주 김현준 김현지 김현진 김현철 김현희 김형기 김형성 김형재 김혜규 김혜련 김혜리 김혜미 김혜숙 김혜순 김혜연 김혜영 김혜옥 김혜원 김혜은 김혜정 김혜진 김홍자 김효선 김효정 김효환 김홍중 김홍주 김홍배 김희경 김희선 김희순 김희연 김희정 김희태

ㄴ 나영숙 나문용 나성주 나성희 나윤경 나지연 나진희 나현업 나현주 나혜영 남경희 남기용 남길현 남명순 남미정 남상민 남술 남신석 남범미 남윤순 남이수 남정민 남진숙 남충진 노명인 노무현 노미정 노순석 노순덕 노옥련 노원 노윤경 노윤범 노은숙 노은하 노의정 노재희 노정섭 노정아 노티모어이 노하정 노현준 노형수 노형준 노혜진 노희섭 누엔녹린 누엔디에람 누엔티투후 누엔티프영

ㄷ 다문화여성연합 당티케우뎀 도이현 도주현 도티후애 도티호영 도현철 동고은 두석호 디나라 디도라 디타한

ㄹ 란티로만 레티김주영 레티김프영 류건희 류경연 류근관 류복연 류시현 류영선 류인혜 류재옥 류정훈 류춘희 류태한 류현지 류효정

ㅁ 마경희 마선자 마정윤 마지열 맹지열 명선나 명은숙 명지현 명지는 명지혜 명진숙 명현숙 명혜숙 모은영 모혜자 모희현 문경숙 문경환 문경화 문금주 문길화 문명숙 문명옥 문미경 문미란 문민경 문보경 문봉순 문세미 문성원 문송희 문숙남 문시윤(문의성) 문영호 문은영 문인선 문재운 문재호 문정근 문정례 문종란 문지영 문진석 문재희 문혜현 문희영 민가영 민경자 민규서 민무숙 민옥기 민형태 민희진

ㄴ 박갑순 박경림 박경미 박경수 박경숙 박경순 박경아 박경옥 박경희 박계화 박광서 박광후 박규리 박근희 박금희 박기남 박기순 박기용 박길선 박길자 박담은 박대근 박동렬 박동연 박득숙 박말숙 박명선 박명수 박명애 박명자 박명주 박모은 박묘진 박미경 박미라 박미선 박미향 박미혜 박미화 박미희 박민숙 박민영 박민혁 박민희 박병용 박병옥 박병호 박병희 박보환 박복의 박사용 박삼숙 박상봉 박상현 박상희 박서연

이은우 이은정 이은주 이은지 이은하 이은행 이은희 이은수
 이의녀 이의영 이의환 이이섭 이인선 이인숙 이인순 이인우
 이인자 이인재 이인화 이자영 이재택 이재숙 이재순 이재욱
 이재욱 이재원 이재준 이재환 이점무 이정남 이정란 이정영
 이정민 이정숙 이정옥 이정우 이정원 이정훈 이정은 이정자
 이정필 이정현 이재규 이재영 이종남 이종숙 이종순 이종용
 이종우 이종윤 이종임 이종훈 이종홍 이주영 이주영 이주현
 이주혜 이주홍 이주희 이준숙 이준혁 이자락 이자숙 이자연
 이자영 이지원 이지은 이지현 이지혜 이지훈 이진경 이진명
 이진서 이진석 이진숙 이진아 이진영 이진우 이진웅 이진희
 이천화 이창균 이창민 이창하 이재룡 이철수 이철순 이춘성
 이춘아 이춘희(이수민) 이치우 이태웅 스테파노 이태원 이태화
 이택연 이택호 이파라 이필영 이하나 이하린 이현영 이해경
 이해운 이현서 이현숙 이현순 이현임 이현정 이현주 이현준
 이현지 이현진 이형근 이형진 이해경 이해계 이해련 이해선
 이해성 이해숙 이해영 이해정 이해준 이해희 이호경 이호태
 이호란 이호선 이홍제 이화숙 이희영 이효숙 이효정 이후영
 이흥재 이희경 이희문 이희복 이희석 이희선 이희숙 이희원
 이희정 이희진 이희화 인미화 임경수 임경숙 임경아 임경애
 임경욱 임경자 임기수 임덕희 임동규 임영숙 임성준 임시화
 임보라 임선희 임성기 임성무/김말순 임성남 임성준/강양숙
 임성택 임수연 임수진 임숙자 임순남 임순영 임순준 임영미
 임영주 임예나 임은정 임은영 임인숙 임인영 임재모 임재실
 임재욱 임정규 임정기 임정숙 임정일 임준석 임진식 임진영
 임진철 임진희 임재홍 임준근 임현숙 임현주 임형근 임혜진
 임호근 임효진 임희숙

※ 자숙에 장경숙 장영철 장경태 장금옥 장기덕 장길용 장남중
 장동애 장명련 장명숙 장명숙 장명환 장문자 장미선 장미정
 장미혜 장병희 장봉화 장빛나 장석만 장선호 장소연 장소정
 장소현 장순연 장승현 장애희 장영준 장연진 장영란 장영미
 장영석 장영숙 장영아 장영일 장영태 장옥형 장원석 장은진
 장이정수 장인선 장인정 장일민 장재철 장정아 장정민 장정희
 장종호 장주연 장지원 장진숙 장철경 장태욱 장한나 장혜경
 장혁재 장현선 장현진 장혜경 장혜숙 장혜영 장혜자 장희연
 장희원 재단법인 시그나사회공헌재단 전남미 전민식 전미경
 전민경 전배자 전부숙 전선애 전순옥 전순선 전순형 전양숙
 전영미 전영애 전영희 전연미 전옥순 전요왕 전용수 전우정
 전원수 전유미 전은규 전은서 전영진 전지애 전지홍 전진숙
 전진영 전태자 전하라 전하예 전향진 전현경 전현정 전현주
 전혜경 전혜림 전혜숙 전혜효 정애 정경림 정경수

정경숙 정경옥 정구선 정규홍 정근하 정길석 정길식
 정나일선 정다은 정다운 정다정 정덕희 정도영 정동숙 정만희
 정명숙 정명주 정미경 정미모 정미선 정미영 정미옥 정미자
 정미정 정미화 정민수 정민자 정삼여 정상만/조성은 정상진
 정상천 정상철 정새봄 정서연 정선미 정선아 정선영 정선자
 정선주 정성령 정성화 정소영 정수경 정수인 정숙윤 정순이
 정승준 정승호 정승희 정신애 정신희 정양숙 정영선 정영숙
 정영애 정영오 정영지 정옥영 정옥민 정용주 정원영 정원윤
 정원희 정유림 정유민 정유연 정유진 정윤현 정용 정은경
 정은미 정은선 정은실 정은애 정은자 정은화 정이기
 정인선 정인하 정재실 정재형 정재호 정재훈 정점순 정정수
 정정숙 정정옥 정정자 정정희 정주희 정준혁 정지용 정지운
 정지윤 정지태 정지훈 정진옥 정창남 정청자 정태규 정태룡
 정태정 정태호 정하선 정하자 정한 정한솔 정현 정현미 정희미
 정현숙 정현아 정현태 정현태 정혜경 정혜민 정해진 정효성
 정희경 정희영 제승욱 제유경 조경미 조경자 조광행 조광호
 조권중 조규 조규원 조근하 조기한 조다래 조단아 조동환
 조명숙 조미 조미래 조미선 조미애 조미영 조미자 조미진
 조민재 조배원 조보미 조복희 조상래 조상은 조석희 조성덕
 조성만 조성민 조성주 조성한 조성희 조세영 조수용
 조순녀 조순태 조승희 조아라 조애진 조연숙 조연재 조연희
 조영근 조영란 조영미 조영숙 조영순 조영진 조영환 조영혜
 조옥라 조용남 조윤세 조은선 조은영 조인중 조정봉 조정숙
 조정연 조정하 조정훈 조정훈 조주현 조지현 조지혜
 조진숙 조진희 조준이 조판옥 조하란 조희래 조혁중 조현덕
 조현정 조현주 조형 조형석 조혜련 조혜영 조호정 조화자
 조화준 조효미 조효정 조홍식 조희연 주경은 주명희 주미영
 주석중 주선숙 주양애 주영 주준희 주해숙 주향숙 주혜명
 줄라일 자상규 자숙자 지일호 지민자 진소미 진영진 진주미
 진침이 진형선

※ 차경선 차경애 차덕희 차명식 차문경 차세원 차승연 차웅열
 차재영 차정숙 차주영 차진옥 차철용 차현숙 채금수 채수경
 채연진 채연하 채용석 채지연 채진석 천경업 천병석 천소연
 천영환 천정윤 천희란 체림 최경수 최경숙 최경순 최경애
 최경일 최경자 최광기 최규복 최근하 최길석 최길용 최낙안
 최남정 최다영 최덕희 최다운 최동길 최명경 최마래 최명진
 최문영 최미경 최미나 최미애 최민영 최민호 최병욱 최병희
 최보솜 최복남 최복희 최세은 최석준 최사아 최선임 최선희
 최성남 최성숙 최성영 최성철 최승실 최수경 최수신나 최수정
 최수진 최수현 최수환 최숙경 최숙희 최순복 최순옥 최순임

최소준 최승희 최애경 최양호 최필 최영숙 최영옥 최옥숙
 최운정 최원석 최유경 최유진 최유민 최유정 최윤희 최은경
 최은숙 최은애 최은정 최은주 최은지 최은혜 최은희 최인
 최인숙 최인이 최인혁 최인형 최재성 최재숙 최재식 최재진
 최재하 최정수 최정아 최정우 최정윤 최정은 최정민 최정하
 최정희 최주혜 최준수 최종열 최지혜 최진희 최철만 최태진
 최하늘 최항기 최해자 최항자 최현수 최현주 최현진
 최현호 최형미 최형숙 최형욱 최혜경 최혜빈 최효식 최화숙
 최화연 최효진 최훈철 최희경 최희화 추교훈 추연식

☞ 카렌

☞ 탁환일 태경희 톤스크리 튀만

☞ 팜타감 팜타바오투 팜민자 팜영애 표근혜/표일용 피선희

※ 하경란 하민호 하세기와 하루미 하순원 하영란 하영애 하유은
 하윤숙 하은경 하지은 하재영 하정미 하종욱 하태성 하혜연
 하향자 하현정 한국여성단체연합 한명식 한영희 한미미 한미옥
 한미정 한미혜 한민경 한민순 한병숙 한상순 한솔 한송이
 한숙자 한승미 한승호 한신옥 한애자 한영수 한영애 한옥련
 한용호 한원경 한일숙 한재수 한정연 한정옥 한정의 한정현
 한중태 한중현 한진 한진희 한창호 한춘화 한태도 한현정
 한혜경 한혜리 한혜영 한혜준 한효주 함윤경 함정숙 허경희
 허남선 허영숙 허명지 허미영 허선 허선이 허성우 허소연
 허소정 허수규 허순자 허신학 허옥희 허유정 허유진 허윤영
 허윤정 허윤희 허은실 허정옥 허준선 허태욱 허혜영 허호영
 현숙성 현준식 호성숙 호옥희 홍광희 홍금택 홍기태 홍명희
 홍문자 홍미경 홍미리 홍미선 홍미정 홍상옥 홍사태 홍석보
 홍선숙 홍성은 홍성희 홍수연 홍순영 홍순영 홍승보 홍승희
 홍영규 홍영성 홍영애 홍예영 홍예진 홍옥란 홍용식 홍용희
 홍유표 홍은희 홍인숙 홍재식 홍정아 홍정민 홍정재 홍지민
 홍지아 홍지후 홍진선 홍진수 홍준택 홍현선 홍현희 홍현정
 홍현주 홍현희 홍혜정 황경연 황경옥 황경주 황규정 황금옥
 황나래 황미영 황미향 황병덕 황보연 황서영 황석민 황선미
 황성미 황성욱 황수연 황순옥 황은주 황은지 황은진 황인실
 황인호 황인희 황정숙 황정민 황정희 황정애 황주연 황진택
 황진호 황현숙 황현실 황혜경 황영은 후인모정 희망이상

T TAW(타)네트워크

나눔과 돌봄, 살림의 사회를 여는 공간 <박영숙홀> 열림식



한국여성재단 1층에 <박영숙홀>이 꾸며졌다. 지난 6월30일, 추모비건립위원들, 현장에서 함께 했던 단체대표들과 활동가, 국회의원 등 지인들이 함께 박영숙홀의 문을 열었다. 여성재단과 박영숙추모비건립위원회, 이상엽위원의 기획과 이경래작가의 디자인, 장병인위원의 타이포그래피로 박영숙선생님의 활동과 책들, 남겨진 말씀들이 잘 어울려진 공간이 되었다.

조형 이사장은 여는 말로 박영숙홀이 어떠시냐고 묻자, 참석한 이들 모두 한목소리로 감사와 격려의 응답을 해주었다. 곧이어 “선생님이 그리울 때, 어떤 분이 궁금할 때 찾아와 주세요. 활동가들에겐 열정을, 연구자들에겐 선생님의 생애를 연구하며 모든 이들에게 에너지를 주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이용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과 박영숙선생님 생전의 모습을 떠올리며 박영숙홀 개관을 축하했다.

후배들에게 해주셨던 따뜻한 밥상을 떠올리다

박영숙홀은 작지만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한쪽벽면엔 평소 하시던 말씀들, 또 한쪽엔 전 생애에 걸친 활동들, 사진들, 마지막 벽면엔 선생님이 평소 손에서 놓지 않고 읽으셨던 책들이 꽂혀 있다. 참석자들은 이경래 디자이너의 공간의 배치설명을 들으며 박영숙 선생님의 삶을 되새겼다. 층층이 선생님의 활동을 담은 사진들을 보며 5층 하늘정원에 도착하여 함께 밥상나눔을 했다. 평소 고인이 활동가들과 후배들에게 선물처럼 차려주었던 밥한 끼의 나눔을 기억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응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박영숙홀은 방문을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개방된다.

(문의: 경영지원팀 02-336-6456)

가족돌봄의 가치를 새롭게 재조명하는 <지치지않는 가족사랑 프로젝트>



<2014년 지치지않는 가족사랑 프로젝트>는 '노인가구 중 장기간 배우자를 돌보느라 지친 노인들을 지원'하여 가족 내 돌봄의 지속가능 및 임파워먼트 강화를 돕기 위해 한국여성재단과 시그나사회공헌재단이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으로 총 6개 파트너단체가 선정되었다. 지난 7월 14일 박영숙홀에서는 <군포시노인복지관>, <보문종합사회복지관>, <본동종합사회복지관>, <수정노인종합복지관>, <영광군정신건강증진센터>,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등 단체 실무자가 참석해 사업을 공유하는 파트너단체워크숍이 진행되었다.

2014 희망날개 <문화기획자 양성과정>, 페스티벌 기획자로 나서다

지난 6월 다문화 여성커뮤니티를 지원하는 <2014 희망날개 지역사회 문화기획자 양성교육>이 성공회대학교에서 개강했다. 조형 한국여성재단 이사장은 "희망날개 프로젝트를 통해 내면의 당당함과 문화 역량으로 주변을 감동시켜 봅시다!"라고 격려의 인사말을 전했다. 6월 17일부터 7월 15일까지 '다양성의 눈으로 세상읽기', '내안의 나 발견하기', '관계 디자인하기', '놀이 디자인하기' 등의 기초강좌를, 7월 26~27일에는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이후 심화과정에서는 축제기획에 관한 교육, 기획실무 워크숍을 통해 이후 <윙크페스티벌>구성과 진행에 참여하게 된다.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과 한국여성재단이 후원하고 성공회대학교가 주관하는 이 프로그램은 2014 희망날개 프로젝트에 함께하는 다문화여성 커뮤니티 18곳의 리더들과 문화다양성에 관심있는 선주민을 포함, 5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베트남 외할머니집에 가요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삼성생명이 후원하는 <2014년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이 올해는 8월에 진행된다. 지난 7월 공고와 심사를 통해, 하노이 10가정(총 39명)과 호치민 10가정(총 40명)이 외가방문에 선정되었다. 외가방문 전 8월 2~3일에는 아동과 부모들은 함께 외가(베트남)에 대해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다. 외가방문은 8월23일~31일, 7박9일이며 참여가족과 외가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베트남(하노이/호치민)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LG이노텍 임직원과 함께 희망멘토링 과학캠프 개최

LG이노텍 임직원과 함께하는 다문화가정 자녀 1:1 멘토링 사업 '희망멘토링' 과학캠프가 지난 7월 19일~20일 1박 2일 간 LG이노텍 파주사업장에서 진행되었다. 친환경을 주제로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 LED조명 등을 멘토와 멘티가 함께 만들어보며 멘티가 과학과 공학기술의 원리를 이해하고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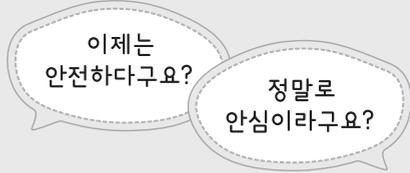


만 명의 기부자가 만드는, 안전하고 즐거운 세상 <만만클럽>



희망을 만드는 만만클럽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만만클럽은 딸들에게 희망을 만들어주는 정기기부자 1만명의 회원클럽입니다.



- 한 해 발생한 폭행범죄 총 128,110건
- 하루 평균 폭행범죄 351건
- 한 시간당 14.6건

출처 : 전국 강력범죄(폭행) 통계자료_법무부(2012)

아픔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할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만만클럽, 이렇게 활동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부로 만들어 낼 수 있는 희망의 힘



우리 사회가 안전 안심사회가 될 수 있도록 폭력예방과 폭력피해자를 돕습니다.



참여방법 온라인참여: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www.womenfund.or.kr-만만클럽 클릭
전화참여: 02-336-6463 (기획홍보팀)

계좌안내 농협 1279-01-111772 / 국민 079-25-0041-019 (예금주: 한국여성재단)

당신답게 오늘을 사세요

세상은 미래를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미치고
아픔도 감수하라고 하지만
한화생명의 생각은 다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걱정하느라
인생의 단 한 번뿐인 오늘을
놓치고 사는 건 아닐까요?

당신답게 오늘을 사세요
당신을 위한 오늘의 보험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